

## FTA 연구에 관한 메타분석

김홍률

동서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Meta Analysis of Prior Studies on FTA

Hong-Youl Kim<sup>a</sup>

<sup>a</sup>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Dongseo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20 October 2020, Revised 15 December 2020, Accepted 24 December 2020

### Abstract

Korea has studied FTA over 20 years since FTA with Chile. More than 3,000 Articles have been published in journal so far. Thus,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direction that should be taken by Korean FTA study by using Meta-Analysis for FTA study which has been carried on so far.

Many researchers publish several articles each year, showing high quotation index and H-index. However, Korean FTA study lacks network with overseas researchers and fusion study with other sciences. 65.4% of Korean FTA study is carried on Independent research and 91.1% of them, in joint research by fewer than 2 persons.

Further, the Subject of FTA study is not diverse and too uniform. Out of total studies, 24.3% of them are related to rules of origin and 15.3% of them, to China, showing that theme of study is quite partially concentrated. This is large difference with overseas FTA study. Study on rules of origin is only 1.5% in overseas. Korean FTA study needs to diversify subjects of study and to balance between academic aspect & practical aspect.

When it comes to study methodology empirical analysis assumed large portion in both Korea and overseas countries. Empirical analysis assumes 18.3% in Korea and 47.3% in overseas, both of which are quite high. However, qualitative study such as FGI/AHP, in-depth interview, case analysis is quite rare in Korean FTA study. Partial concentration of countries for study subject needs to be rectified also. In Korea, countries for FTA study is China 15.3%, EU 10.0%, USA 6.3%. In overseas, China assumes only 3.7% of study subject. It is required for Korean FTA study to extend study subjects & study area by forming global study network and to extend qualitative study with microscopic study.

**Keywords:** FTA, Meta-analysis, KCI, H-index, Korea Trade Review

**JEL Classifications:** F13, F51

\* First Author, E-mail: [hykim@dongseo.ac.kr](mailto:hykim@dongseo.ac.kr)

© 2020 The Korea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이 논문은 2020년도 동서대학교 'Dongseo Frontier Project'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I. 서론

지난 1999년 칠레와 FTA를 추진하면서 시작된 우리나라 FTA 연구는 이미 20년을 넘어서고 있다. FTA 초기연구는 주로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시작되었으나, 2006년 한미 FTA와 2012년 한중 FTA를 기회로 많은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그동안 수많은 논문과 보고서, 세미나 프로시딩 자료 등이 발표되었는데 그동안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도 3,000여개가 넘는다.

FTA 연구 역사가 길다보니 연구자중에는 매년 수 건의 논문을 발표한 저자도 있고, 수십 건씩 인용되는 높은 피인용지수를 가진 논문도 있다. 그리고 훌륭한 연구수준을 인정받아 높은 H-지수를 가진 연구자도 여러 명 있다. 뿐만 아니라 FTA 자체에 대한 찬반 논쟁과 더불어 FTA 연구방법에 대한 논쟁도 불거져 국내 10여개 연구기관이 FTA 효과에 관해 합동 연구를 수행한 적도 있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수행된 FTA 연구를 분석해보고 향후 우리나라 FTA 연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나 미진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학술지에 게재된 FTA 논문 약 3,653건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meta analysis)이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로 이루어진 많은 연구물들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계량적으로 종합하여 분석해보고 향후 미래 연구를 제시하는 연구방법의 일종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내에서 누가 FTA 연구를 많이 했으며, 그 영향력이나 연구성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살펴보았다. 둘째, FTA 논문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주요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은 무엇이고, 또 시기별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키워드는 연구자가 본인의 연구내용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선별한 것으로 연구내용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 셋째, 국내 FTA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연구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과거 한미 FTA에서 언급된 연구방법에 대한 신뢰성 논쟁도 살펴보았다. 넷째, 국내 FTA 연구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해

외에서는 FTA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의 연구와 무엇이 다른지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FTA 연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나 보완해야 될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분석

국내에서 FTA 연구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은 많지 않다. 먼저 지난 2014년에 한국무역학회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무역학회지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FTA 연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국제무역론' 분야의 일부로서 FTA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당시 Yeo Taek-Dong (2014)은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역경제통합과 FTA의 협상 동향, 그리고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고 보았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해서는 FTA 체결 이전 타당성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전적 분석과 체결 이후 나타난 교역데이터를 토대로 실제로 효과를 분석하는 사후적 분석으로 구분하였다. 주로 CGE (일반균형연산)모형을 이용하여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많고, 일부 중력모형을 활용한 pooled OLS모형,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실증연구가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FTA 자체에 대한 메타분석으로는 Kim Moon-Hee (2017)가 있다. Kim Moon-Hee는 FTA 연구중에서 경영분야를 대상으로 연구자의 전문성, 연구분야, 연구방법, 연구대상 국가를 중심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체로 경영분야에서의 FTA 연구는 부족하지만 지식서비스, 콘텐츠, 전문서비스 분야에 대한 FTA 대응이 적극적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는 향후 다양한 연구방법이 도입되어야 하고 다양한 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보다 체계인 메타분석은 2018년에 한국통상정보학회가 『통상정보연구』에 수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상품 및 서비스, 전자무역, 지역통상정보, 통상협상, 그리고 통상법·제도 분야에 대한 메타분석이다. Lee Ho-Hyung (2017)은 『통상정보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학문 분야별 논문 수, 논문 저자들의 소속기관, 전공분야, 연구비 수혜 논문 비율, 인용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자무역, 상품 및 서비스 혁신, 지역통상정보, 통상법·제도, 통상협상 순으로 논문이 많이 게재되었고, 2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저자들의 전공분야가 15가지가 넘으므로 『통상정보연구』가 다양한 전공분야의 논문을 게재하는 다학제적인 논문집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Lee Ho-Hyung(2018)은 『통상정보연구』에 게재된 전자무역 분야 논문의 통계적분석, 저자 및 인용 분석, 그리고 논문의 주제어 동향 분석 등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전자무역 분야의 논문 비중이 낮아졌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수출마케팅 관련 논문들과 전자무역의 활용 및 성과에 관한 논문들의 피인용 지수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통상정보연구』에 게재된 통상법 등 제도분야 메타분석에서 Han Sang-Hun and Kim Tae-Hwan (2018)은 통상법·제도 연구의 논문 편당 평균 저자 수는 1.48명이고, 연구방법에서는 전체의 77.1%가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키워드로는 WTO, UCP가 가장 많다고 밝혔다.

한편, Sohn Sung-Pyo(2020)은 한국연구재단의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Database를 활용하여 『관세학회지』에 게재된 관세분야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가장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주제로는 4차 산업혁명, FTA, 고객만족, 운영성과 등인데, 향후 『관세학회지』의 아이덴티티인 무역학 분야의 학술적 정체성 확립과 보다 광범위한 학문적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Kim Chang-Bong and Yo Kyong-Chol (2017)은 한국·인도 FTA의 무역효과에 대한 대표적인 해외연구들 중에서 최근에 활발하게 인용되고 있는 SCOPUS 논문 6편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누적효과, 상대효과 등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Oh & Kim (2012)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고정효과는 높으면서 누적효과가 낮아서 한·

인도 FTA의 무역효과 연구중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논문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Kim Young-Min and Hong Eui (2015)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제상학』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 국제운송과 물류, 국제통상 관련 논문이 많이 게재된 반면 무역계약과 무역결제 관련 논문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 Ⅲ. 연구방법 및 데이터

#### 1. 연구방법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키워드를 이용한 메타분석이다. 우선 KCI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후 분석대상인 논문들을 저자, 키워드, 발간시기, 연구방법에 따라 범주화하여 키워드 중심으로 재배치하였다. 키워드 분석은 연구내용이나 연구대상을 파악하고 시기별로 연구주제의 변화를 알아내는데 가장 유리하다. 왜냐하면 키워드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내용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어라고 판단하여 선정한 용어이고, 또, 키워드는 해당 학술 논문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이나 성질 및 해당 개념의 구체적 예시나 연관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이다(Han, Sang-Hun and Kim Tae-Hwan, 2018).

그리고 메타분석(meta analysis)이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로 연구되어진 많은 연구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계량적으로 종합하여 고찰하는 연구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양적 접근방법을 통한 종합적 분석은 이미 1930년대부터 통계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1976년 Glass에 의해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analysis of analyses)이라는 뜻을 가진 '메타분석'이란 용어가 처음 소개가 되었다(Bae Ho-Soon, 2004). 그러므로 메타분석은 과거 특정 연구주제에 대해 독립적으로만 분석하는 문헌연구가 갖는 한계를 넘어서 개별 연구결과들을 통계적으로 통합 또는 비교하여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연구 결론을 이끌어 내는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Shin, Tae-Beom and Kweon Sang Hee,

2013). 이러한 키워드를 이용한 메타분석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실시한 메타분석과는 연구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메타분석을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어느 분야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누구의 연구가 영향력이 있었고, 또, 어느 연구방법이 효과적이었는지 등등 과거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미래 연구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FTA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그동안의 FTA 연구에서 해결되지 못한 과제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2. 데이터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국내에서 FTA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8년부터 2020년 7월 말 현재까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검색된 논문이다. KCI에서 'FTA'를 키워드로 넣고 검색하면 총 4,157건의 논문이 검색된다. 이 중에서 의학, 공학, 자연과학, 예술, 체육은 FTA 연구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모두 제외하면 인문학 158건, 사회과학 3,494건만 남게 되어 총 3,653건을 연구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국내학술지 중에서 FTA 연구가 많이 게재되는 학회지로는 『무역학회지』, 『관세학회지』, 『통상정보연구』 등이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무역학 분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또, 학회지 대표성도 가지고 있는 『무역학회지』를 대상으로 게재논문 약 101편에 대해 별도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에서는 연구대상 자료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 너무 엄격하게 분석대상 자료를 선정하면 메타분석을 통해서 얻어지는 일반화된 이해를 얻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너무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관련성이 떨어진 논문까지 포함하게 되어 연구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Kim Chang-Bong and Yo Kyongchol (2017)의 주장에 따르면 자료선정은 문헌검색-문헌선별-선정기준-최종선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무역학회지』를 대상으로 한 FTA 논문 선정에서도 정확성을 담보

하기 위해 총 128편의 논문중에서 타당성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약 27건을 제외하고 101편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국내 FTA 연구와 해외 FTA 연구를 비교하기 위해 'ScienceDirect' DB에서 'FTA'를 키워드로 검색한 후 FTA 논문 게재 상위 7개 저널을 한정하여 약 323건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무역학회지』 게재 논문과 해외 논문을 비교하기 위해 해외에서 FTA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를 별도로 선정하여 국내외 FTA 연구를 비교하였다.

## IV. FTA 연구내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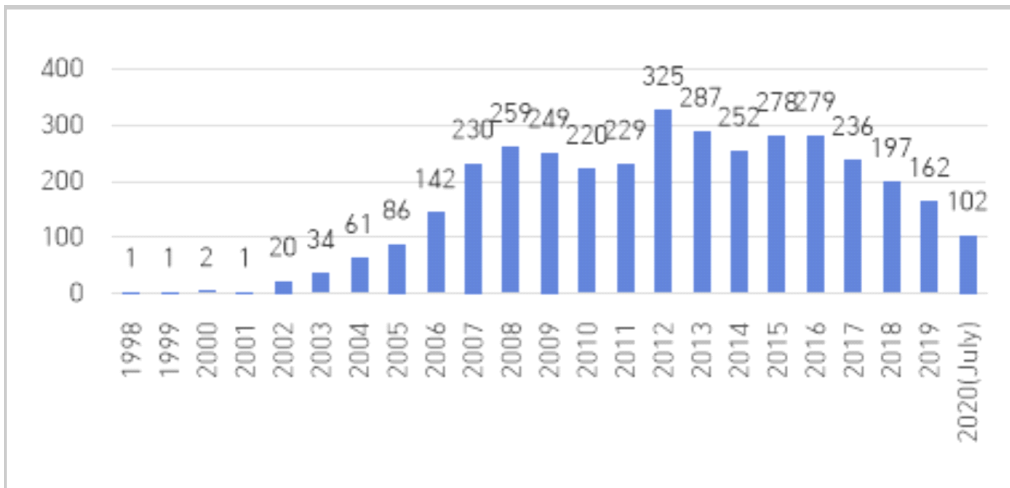
### 1. FTA 연구실적

#### 1) 국내 FTA 연구실적

국내 FTA 연구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 칠레 FTA가 시작되는 1998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한미 FTA 논쟁이 심했던 2008년에 급속하게 증가되었고, 2012년에 절정에 이른 후 2016년부터는 차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08년과 2012년에 FTA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는데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 FTA 추진일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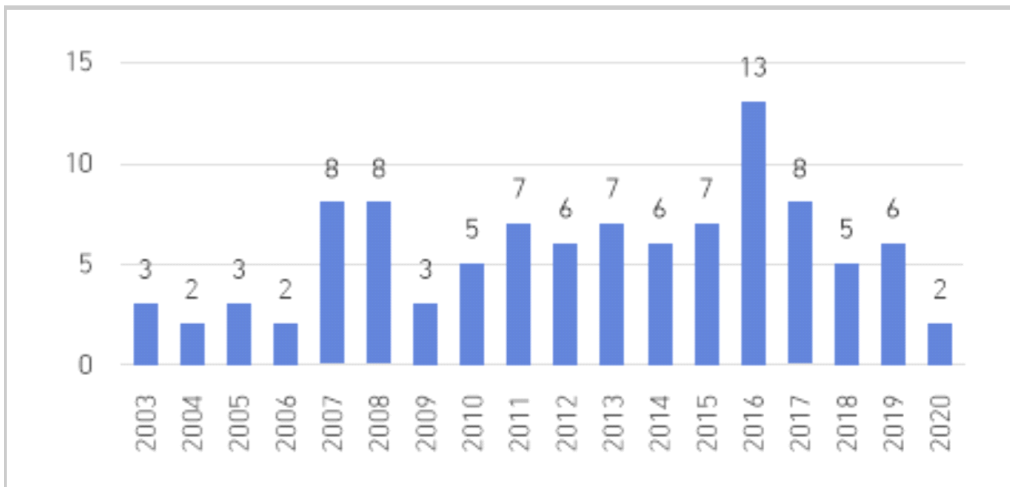
2008년에 FTA 연구가 많았던 이유는 한미 FTA 때문이고, 2012년에 연구가 많았던 것은 한중 FTA 때문으로 보인다. 즉, 한미 FTA가 2007년 6월 서명되고 2012년 발효되었고, 한중 FTA가 2012년 협상을 개시였다. 그리고 2016년에 연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 등이 2015년에 발효되었고, 한·콜롬비아가 2016년에 발효되는 등 여러 개의 FTA가 동시에 발효된 효과로 보인다. 결국 국내 FTA 연구는 주요 거대 경제대국과의 FTA 추진과 병행하여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Fig. 1. FTA Research Trend in Korea



Source: KCI, N=3,653

Fig. 2. FTA Research Trend in *Korea Trade Review*



Notes: 101 Articles in *Korea Trade Review* as of July 2020  
Source: KCI

## 2) 무역학회지 FTA 논문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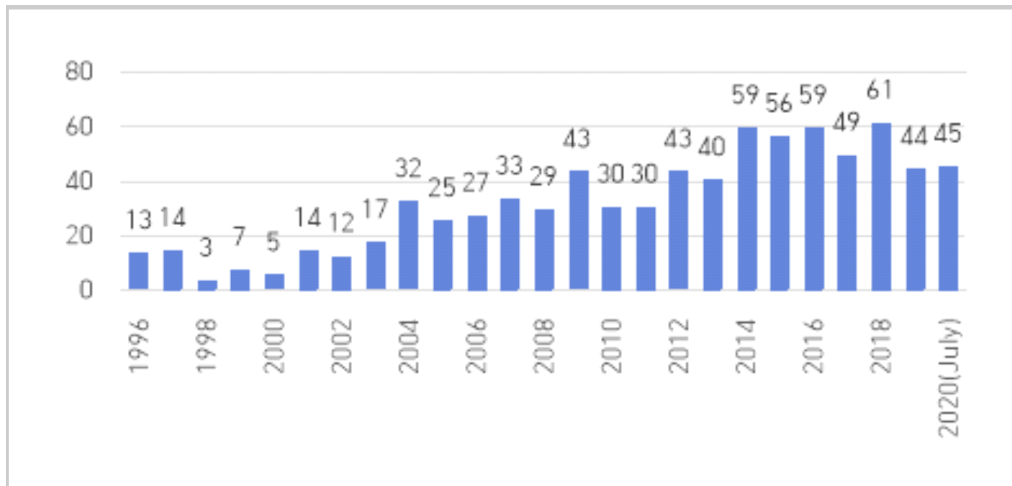
『무역학회지』의 연도별 연구추세도 우리나라 전체의 FTA 연구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08년과 2016년에 연구실적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한미 FTA와 한중 FTA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무역학회지』에서는 매년 평균 5.6

편의 FTA 논문이 게재되었다.

## 3) 해외에서의 FTA 연구

해외에서의 FTA 연구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ScienceDirect DB에서 ‘Free Trade Agreement’, ‘FTA’를 키워드 검색하면 1996년부터 2020년 7

Fig. 3. FTA Research Trend in Overseas



Notes: 790 Articles from 1996 to July 2020

Source: 'Free Trade Agreement', 'FTA' Key Word in ScienceDirect DB

월 현재까지 790건으로 집계된다. 우리나라의 FTA 연구가 거대경제권인 미국, EU, 중국과 FTA를 체결할 때 가장 많이 연구가 이루어진 것과 대조적으로 해외에서의 FTA 연구는 대체로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2014년부터 더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게재 건수에서도 차이가 있다. 한국 KCI내 FTA 연구는 매년 평균 161편이 게재되지만 ScienceDirect Data Base에는 매년 31건 정도가 게재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FTA 연구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물론 KCI와 ScienceDirect DB는 서로 포함하고 있는 저널의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게재 건수만으로는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다. 하지만, KCI가 등재지(후보) 2,415개, 기타 학술지 3,295개 등 총 5,808종의 학술지를 포함하고 있고, ScienceDirect가 총 3,500여종의 저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KCI의 저널 수가 약간 더 많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도 한국의 FTA 논문 편수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 2. FTA 연구자 분석

### 1) 개인별 FTA 연구 실적

국내 연구자들의 FTA 연구는 매우 활발했다. 정확하게 FTA만을 키워드로 검색했을 경우 만도 아래 (Table 1)와 같이 많은 논문들이 검색되는데, 실제로 FTA와 연관된 협상, 규범, 제도, 분쟁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하면 훨씬 더 많은 연구결과가 검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FTA 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Cheong Inkyo이다. 주로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FTA 협상 체계, 원산지규정 및 활용, 통상규범에 대한 연구들이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은 Cheong Inkyo (2009)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 조사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Cheong Inkyo (2006) 「한·중 FTA의 경제효과 추정」이다.

그다음으로 게재 건수가 많은 저자는 Kwon Soon-Koog으로 무역실무에 대한 연구가 많다. Kwon Soon-Koog은 특히 원산지 활용·인증·사후 검증이 많고, 전자상거래, 운송분야는 물론 심지어 농축산 분야에서 말(馬) 수출 방안

**Table 1.** The Number of FTA Publications by Author

| Rank | Author          | Number of Publication | Rank | Author         | Number of Publication |
|------|-----------------|-----------------------|------|----------------|-----------------------|
| 1    | Cheong Inkyo    | 27                    | 21   | Park Hyun Hee  | 12                    |
| 2    | Kwon Soonkoog   | 21                    | 22   | Kim Yang-Hee   | 11                    |
| 3    | Ko Jong-Hwan    | 18                    | 23   | Kim Tae-In     | 11                    |
| 4    | Lee Jaemin      | 18                    | 24   | Kim Kwan-Ho    | 11                    |
| 5    | Lee Je-Hong     | 16                    | 25   | Lee Gyooho     | 11                    |
| 6    | Kang Yooduk     | 16                    | 26   | Chung Jae-Wan  | 11                    |
| 7    | Bongchul Kim    | 16                    | 27   | Sohn Soo-Seok  | 11                    |
| 8    | Park Deok_Young | 16                    | 28   | Kim Yeu-Sun    | 11                    |
| 9    | Lie Han Young   | 15                    | 29   | Park Chongsuk  | 10                    |
| 10   | Kang Jun-Ha     | 15                    | 30   | Jin Byung-Jin  | 10                    |
| 11   | Kim In-Sook     | 15                    | 31   | Song Backhoon  | 10                    |
| 12   | Kim Hyunjung    | 14                    | 32   | Son Yong-Jung  | 10                    |
| 13   | Zhang Ao-Peng   | 14                    | 33   | Kim Byungil    | 10                    |
| 14   | Sohn Kiyoun     | 14                    | 34   | Yi Jisoo       | 10                    |
| 15   | Cho Mee-Jin     | 14                    | 35   | Lim Moksam     | 10                    |
| 16   | Yoon Sungwook   | 14                    | 36   | Ryu, Ye-ri     | 10                    |
| 17   | Kwon Hyun-Ho    | 14                    | 37   | Kim Yongjin    | 10                    |
| 18   | Lee Seung-Joo   | 13                    | 38   | Kim Young-Chun | 10                    |
| 19   | Kim Changbong   | 13                    | 39   | Lee Hong-Bae   | 10                    |
| 20   | Cho Junggran    | 13                    | 40   | Yoon Ki-Kwan   | 9                     |

Note: Chosen in 3,653 Articles from January 1998 to July 2020

Source: KCI

까지 연구하였다. 그는 연구대상 국가에 아프리카도 포함시키는 등 연구주제와 연구분야가 가장 넓은 저자이다.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은 Lee Yong-Soo and Kwon Soon-Koog (2011) 「FTA 원산지규정 위반 판정사례와 시사점」이다.

이밖에도 Ko Jong-Hwan은 CGE를 이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 많은데, 수산물 산업은 물론이고, 연구대상 국가도 중동의 GCC(걸프협력회의), 유럽의 EU, Brexit(브렉시트), 아태지역의 RCEP 등 여러 다자무역체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다. 이밖에도 약 40명의 저자가 그동안 FTA 관련 논문을 10건 이상씩 발표해 왔다.

## 2) 연구자 네트워크

아래 <Table 2>는 우리나라 FTA 연구의 공동연구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1인 단독연구가 65.4%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2인 공동연구가 25.7%, 3인 공동연구가 7.5%, 그리고 4인 이상 연구는 전체의 1.4%로 매우 적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FTA 연구는 단독연구 또는 2

인 이하의 공동연구가 전체의 91.1%로서 다른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나 다른 학문과의 융합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FTA 연구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FTA 논문 게재 건수가 많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연구자간 연구네트워크를 살펴보면, △ 정인교-이창수-조정란-박상길-윤기관 네트워크, △ 권순국-이영수 네트워크, △ 고종환-Geoffrey Musyoki Kitetu-Abdullah A. Bouhamdi-Dieter Eibel-K. M. M. RAHMAN-Khandaker Md. Mostafizur Rahman 네트워크, △ 이제홍-이정우-김지용-정분도 네트워크, △ 이한영-강신원-김원식 네트워크, △ 조미진-장용준-박명섭 네트워크, △ 김창봉-이용근-최석범 네트워크가 대표적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FTA 연구는 공동연구가 부족할 뿐더러 해외 연구자와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미흡하다. 다만, 고종환 네트워크는 국제협력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형성되어 수산물은 물론이고, EU, 중동지역, 아태지역, 그리고 GCC,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같은 다자간 지역무역체제를 연구하는 등 해외공동연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Table 2.** Status of Joint Research on FTA

| The Number of Author | Number of articles | Proportions |
|----------------------|--------------------|-------------|
| 1 person             | 2,389              | 65.4%       |
| 2 people             | 938                | 25.7%       |
| 3 people             | 274                | 7.5%        |
| 4 people             | 41                 | 1.1%        |
| More than 5 people   | 11                 | 0.3%        |
| Total                | 3,653              | 100%        |

Source: KCI, Total Number of article is 3,653

### 3) FTA 연구수준 평가

FTA 연구 역사가 긴 만큼 그동안 영향력 있는 훌륭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아래 <Table 3>는 FTA 논문 피인용 상위 20개를 선별한 것이다. 우리나라 FTA 연구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으므로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인용 논문 상위 20개의 연구주제는 다양하지 않다. 즉, 아래 <Table 3>을 살펴보면 연구주제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원산지 규정이나 활용 관련이고, 다른 하나는 FTA의 무역효과에 관한 논문들이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원산지 관련 논문들로서 피인용 논문 상위 20개 중에서 원산지 연구가 아닌 것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 FTA 연구가 주제가 다양하지 못하고, 학술연구보다는 실무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해외에서 인기 있는 FTA 연구 주제는 국내에서의 주제와 조금 다르다. 아래 <Table 4>는 국제경제학 분야의 대표적인 필드 저널인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JIE)에서 게재된 FTA 논문중에서 인용 횟수가 많은 상위 18개의 논문들이다. 우리나라에서의 FTA 연구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다룬 논문이 인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관세철폐, 경제지리, FTA의 정치경제학 등 연구 주제가 국내보다 더 다양하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FTA 원산지 연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편이지만 해외에서는 FTA 원산지 연구가 아래 <Table 4>에서와 같이 겨우 한 개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

는 지난 2020년 12월 무역통상학회에서 어느 연구자의 토론과 같이 국내 FTA 연구는 이미 FTA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활용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비해, 해외 FTA 연구는 FTA의 필요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관해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물론 JIE와 무역학회지 논문은 서로 다를 수 있다. JIE는 국제경제학 분야의 저널로서 경제이론과 국제무역 관련 실증연구에 특화되어 있고, 『무역학회지』는 실증분석과 함께 FTA 실무와 정책연구 등의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저널마다 추가하는 목적과 그동안 발전시켜온 분야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 두 학회지간의 연구주제와 방법을 비교할때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번에는 국내 FTA 연구자들의 질적 연구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H-지수'를 살펴보았다. H-지수란 특정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 수와 피인용 횟수를 이용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연구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2005년에 J. E. Hirsch이 개발한 지표이다. H-지수의 산출방법은 왼쪽에 연구자의 논문중에서 많이 인용된 횟수를 차례로 정렬하고 오른쪽에 발간된 논문 수를 정렬하는데, 이때 서로 수치가 일치하는 숫자가 바로 H-지수가 된다. 따라서 H-지수가 5라면 논문 인용횟수가 5회가 넘는 논문이 적어도 5편이라는 의미가 된다. 기존의 논문 평가방법이 단순히 게재 논문 수 또는 피인용 수 등 양적 기준으로만 평가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H-지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양적 평가와 질적평가를 동시에 고려한 종합평가라고 할 수 있다.



**Table 3.** Top 20 Quoted FTA Articles

| Rank | Author  | Title   | Year | Quotations |
|------|---|---|------|------------|
| 1    | Cho Mee-Jin and An Kyoung-Ae                  | The Rules of Origin in Korean FTAs and the Analysis on the Domestic Firms' Use of FTAs  | 2011 | 48         |
| 2    | Kim Yong-Tae and Chung Jae-Wan                |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of FTA Utilization by Korean Medium and Small Enterprises   | 2013 | 36         |
| 3    | Na Do-Sung and Youn youngho                   | An Empirical Study of the Influencing Factors on Export Performance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s                                 | 2011 | 36         |
| 4    | Roh, Deok-Rhyool                              | Determinants of Spaghetti Bowl Phenomenon in the Use of Korea's FTA Preferences   | 2010 | 34         |
| 5    | Park Cheol-Gu and Choi Jang-Woo               |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SMEs' Origin Management Competency and Utilization of FTA                                   | 2013 | 31         |
| 6    | Lee Young-Soo and Kwon Soon-Koog              | The Case Study and Its Implication on the Breach of Rules of Origin in FTAs   | 2011 | 31         |
| 7    | Nam Phung-Woo and Choi Jun-Ho                 | A Study on the Origin decision standard and Certificate of Origin Preparation of Korea? ASEAN FTA                                   | 2007 | 31         |
| 8    | Lee Hyeon-Woo                                 | Comparative Analysis on Roll-Call Voting in the Korean Assembly and the U.S. House: On the Free Trade Agreement                     | 2005 | 31         |
| 9    | Jeong Inkyo                                   | Survey on the FTA utilization and policies for enhancing Korean companies' utilization ratio  | 2009 | 30         |
| 10   | Nam Phung-Woo                                 | A comparative study on the origin verifications system in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 2010 | 30         |
| 11   | Kim Wan-Joong                                 | The Impacts of Regional Trade Blocs on Korea's Trade: An Analysis Using Panel Gravity Model   | 2005 | 29         |
| 12   | Youn Yung-Ho and Na Do-Sung                   |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Capabilities of Utilizing FTAs and Export Performance: Focused on Resource-based View   | 2013 | 28         |
| 13   | Jon, Joon-Soo and Cho Junyoung                |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 about Origin Verification of Korea · EU FTA   | 2012 | 28         |
| 14   | Kwon Soon-Koog                                | The Strategies for the Export Vitalization of Cross-Border E-Commerce of Korean Products to the Conclusion of the Korea · China FTA | 2015 | 28         |
| 15   | Mo Soo-Won and Kim Chang-Beom                 | A Relative Importance Evaluation of the Industrial Sector According to the FTA Using AHP and Fuzzy AHP                              | 2012 | 28         |
| 16   | Cin Beom Cheol                                |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mployment Effect of Korean Exporting using the DPD model  | 2009 | 28         |
| 17   | Lee Sangjin, Kim Moo-han and Kim Hyoung-Cheol | A Study on the Analysis of FTA Rules of Origin and its Application Strategies   | 2009 | 27         |
| 18   | Jeong Jae-Hwa                                 | An Analysis on the Trade Effect of FTA using Intensity of Trade   | 2012 | 26         |
| 19   | Kim Tae-In and Li Jun Jian                    | An Empirical Study on the FTA Performance of FTA Awareness and Applicability  | 2014 | 25         |
| 20   | Kim Minjung and Kim Chong Sup                 | The Impact of Korea' s Free Trade Agreements (FTAs) on the Intensive and Extensive Export Margins                                   | 2012 | 25         |

Notes: Chosen in 3,653 FTA Articles

Sourec: KCI

**Table 4.** Top 18 Quoted FTA Articles in Overseas

| Rank | Author                                 | Title  | Year |
|------|--|--|------|
| 1    | Baier S.L., Bergstrand J.H.            | Do free trade agreements actually increase members' international trade?                                 | 2007 |
| 2    | Richardson M.                          | Endogenous protection and trade diversion  | 1993 |
| 3    | Baldwin R., Jaimovich D.               | Are Free Trade Agreements contagious?  | 2012 |
| 4    | Furusawa T., Konishi H.                | Free trade networks  | 2007 |
| 5    | Bond E.W., Riezman R.G., Syropoulos C. | A strategic and welfare theoretic analysis of free trade areas   | 2004 |
| 6    | Panagariya A., Krishna P.              | On necessarily welfare-enhancing free trade areas  | 2002 |
| 7    | Ornelas E.                             | Endogenous free trade agreements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 2005 |
| 8    | Anderson J.E., Yotov Y.V.              | Terms of trade and global efficiency effects of free trade agreements, 1990-2002                         | 2016 |
| 9    | Chen M.X., Joshi S.                    | Third-country effects on the form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 2010 |
| 10   | Stoyanov A.                            | Trade policy of a free trade agreement in the presence of foreign lobbying                               | 2009 |
| 11   | Baier S.L., Yotov Y.V., Zylkin T.      | On the widely differing effects of free trade agreements: Lessons from twenty years of trade integration | 2019 |
| 12   | Thompson A.J.                          | Trade liberalization, comparative advantage, and scale economies stock market evidence from Canada       | 1994 |
| 13   | Missios P., Saggi K., Yildiz H.M.      | External trade diversion, exclusion incentives and the nature of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 2016 |
| 14   | Lake J., Yildiz H.M.                   | On the different geographic characteristics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Customs Unions                  | 2016 |
| 15   | Ketterer T.D., Bernhofen D., Milner C. | Preferences, rent destruction and multilateral liberalization: The building block effect of CUSFTA       | 2014 |
| 16   | Lake J., Roy S.                        | Are global trade negotiations behind a fragmented world of "gated globalization" ?                       | 2017 |
| 17   | Lake J., Millimet D.L.                 | An empirical analysis of trade-related redistribution and the political viability of free trade          | 2016 |
| 18   | Panagariya A., Duttagupta R.           | Politics of free trade areas: Tariffs versus quotas  | 2002 |

Source: Chosen i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Table 5〉는 KCI에 등재된 2011-2020년 논문 중에서 키워드를 'FTA'로 통합검색을 했을 경우 검색되는 408건을 논문 중에서 H-지수 상위 13개를 추출한 것이다. 따라서 아래 연구자들이 국내 FTA 연구에서 가장 수준 높은 연구를 해온 연구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이후 국내 FTA 연구에서 H-지수가 높은 연구자는

Mo Soo-Won과 Kim Changbong이다. 그는 H-지수가 13인데, 이는 피인용 횟수가 13회 이상 되는 논문을 적어도 13편 이상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Mo Soo-Won & Kim Changbong (2012) 'AHP와 퍼지 AHP를 이용한 국가별 FTA에 따른 산업부문의 상대적 중요도' 등이 있다.

**Table 5.** Top Authors of H-Index in FTA

| NO | Author         | Research Areas          | Number of Quotations | Average Number of Quotations | H-Index |
|----|----------------|-------------------------|----------------------|------------------------------|---------|
| 1  | Mo Soo-Won     | Trade Theory            | 778                  | 5.7                          | 13      |
| 2  | Kim Changbong  | International Logistics | 808                  | 5.7                          | 13      |
| 3  | Chung Jae-Wan  | Customs/Tariffs         | 365                  | 8.1                          | 11      |
| 4  | Lee Choong-bae | International Logistics | 458                  | 5.2                          | 10      |
| 5  | Kim Chang-beom | International Economics | 322                  | 5.1                          | 9       |
| 6  | Cheong Inkyo   | International Economics | 246                  | 6.3                          | 9       |
| 7  | Kang Won-Jin   | International Trade     | 195                  | 6.9                          | 9       |
| 8  | Lee Je-Hong    | Trade Business          | 435                  | 4.2                          | 9       |
| 9  | Chung Yongkyun | E-Trade                 | 306                  | 6.6                          | 9       |
| 10 | Moon Hee-Cheol | E-Trade                 | 320                  | 6.4                          | 9       |
| 11 | Pak Myong-Sop  | International Logistics | 348                  | 2.8                          | 9       |
| 12 | Cho Jungran    | International Trade     | 170                  | 6.0                          | 9       |
| 13 | Kim Hag-Min    | E-Trade                 | 319                  | 5.8                          | 9       |

Source: KCI

### 3. 시기별 FTA 연구내용 분석

#### 1) 1998-2000년(태동기)

지난 20년간 국내 FTA 연구의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1998년부터 2020년 7월 말 현재까지 KCI에서 검색되는 논문 총 3,653을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을 하면 크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2000년대 이전 FTA 논문은 총 5건에 불과하다. 초기 FTA 연구는 주로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의해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Kim Chang-Tae (1998),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나타난 자유무역협정(FTA)의 통상정책적 도구로서의 원산지규정」, 『지역정책연구』 10(1), 충북개발연구원. Cheong Inkyo (1999),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의의」, *East Asian Economic Review*, 3(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Sohn Chan-Hyun and Yim Hyo-Sung (2000),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회원국간 경제수렴 분석」, *East Asian Economic Review*, 4(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Cheong Inkyo (1999), 「지역무역협정의 무역균질 효과 추정방법의 모색-특혜원

산지규정의 측면에서-」, *East Asian Economic Review*, 3(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다. 1998-2000년에는 칠레와 처음으로 FTA를 추진하던 시기로서 국책연구기관인 KIEP를 중심으로 FTA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FTA를 통한 무역균질 효과 등 주로 경제에 미치는 거시경제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 2) 2001-2005년(도약기)

2001-2005년간 총 FTA 연구는 202건으로 이 시기 역시 FTA 연구의 '도약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연구주제가 다양하지는 않지만 무역학의 고전적 주제인 시장개방이나 시장개방의 효과를 다룬 주제가 많다. 그리고 FTA에 대한 추진방법이나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보다는 FTA 자체에 대한 연구로서 경제불력, 경제통합 등 지역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가 많았고,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도 많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학계에서는 WTO를 중심으로한 다자주의와 FTA를 중심으로한 양자주의간의 대립과 조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

**Table 6.** FTA Research Trend by Subject

(Unit : %, Cases)

| Subjects             |   | 1998-2000 | 2001-2005 | 2006-2010 | 2011-2015 | 2016-2020 |
|----------------------|---|-----------|-----------|-----------|-----------|-----------|
| Market access        | Tariff/Market Access  |           | 9.0       | 5.5       | 6.8       | 8.0       |
|                      | Dumping/Countervailing Duty/Safeguard                                     |           | 2.0       | 2.3       | 2.3       | 1.2       |
| Ruels/ Regulations   | Rule/Law/Regulation   | 20.0      | 0.5       | 5.0       | 6.5       | 6.6       |
|                      | Competition Policy  |           | 0.0       | 0.5       | 0.3       | 0.0       |
|                      | Investment  |           | 6.0       | 10.4      | 13.3      | 8.6       |
| Economic Integration | MEGA/TPP/CPTPP/RCEP   |           | 0.0       | 0.2       | 6.5       | 9.2       |
| Rules of Origin      | Rules of Origin   | 40.0      | 1.0       | 9.5       | 17.9      | 24.3      |
| Non-tariff Barrier   | Custom Clearance /SPS/TBT   |           | 3.0       | 3.5       | 5.7       | 8.4       |
| Empirical Analysis   | CGE/Gravity Model /I-O Analysis/General Equilibrium/Comparative Advantage | 60.0      | 18.5      | 14.3      | 17.1      | 18.3      |
| Negotiation          | Negotiation/Games/Dilemma   |           | 5.0       | 4.7       | 1.9       | 2.9       |
| China                | China   |           | 8.0       | 8.6       | 13.0      | 15.3      |
| EU                   | EU  | 20.0      | 3.5       | 11.3      | 12.0      | 10.0      |
| USA                  | USA   |           | 3.0       | 15.7      | 9.1       | 6.3       |
| Japan                | Japan   |           | 4.5       | 2.4       | 1.8       | 0.7       |
| ASEAN                | ASEAN/Asia/Northeast Asia   |           | 3.5       | 3.0       | 2.6       | 4.5       |
| Number of Articles   |   | 5         | 202       | 1,100     | 1,371     | 976       |

Notes: 1. Key Word Analysis of 3,653 Articles  
2. Duplicate Calculation

지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한 초기단계이고, FTA 연구에서도 도약기에 해당되어 FTA와 시장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와 활용보다는 FTA를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우려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따라서 피해산업 보호, 농산물 양허, 민감품목, 수산물 조정관세 등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한편, 2001-2005년에는 한국이 칠레와의 FTA 이후, 싱가포르, EFTA, 일본, ASEAN과 FTA를 추진했던 시기이다. 따라서 거대 경제권에 속한 일본과의 FTA가 추진되어 일본 관련 연구가 많았다. 당시 한일 FTA는 2002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가 6차례 개최되고, 2003년 12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4년 11월까지 6차 협상이 진행되던 시기이다. 따라서 <Table 6>에서와 같이 일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 연구의 4.5%로서 다른 시기보다 월등히 많았던 시기이다. 그러나 한일 FTA 추진은 2004년들어 일본의 농수산물에 대한 소극적 개방과 한국의 공산품 분야에 대한 소극적 개방으로 협상은 결렬되었다.

### 3) 2006-2010년(도약성장기)

2000년대 들어 FTA 연구가 급격하게 증가하

**Table 7.** Key Word Analysis of FTA Research

| Classification      | Subject  | Cases              | Proportion |
|---------------------|--|--------------------|------------|
| Market Access       | Tariff/Market Access                                     | 269                | 7.4%       |
|                     | Ruels/Regulations/Law                                    | 232                | 6.4%       |
| Ruels/Regulations   | Anti-dumping/Countervailing Duty/Safeguard               | 80                 | 2.2%       |
|                     | Trade Relief/Restructuring                               | 35                 | 1.0%       |
|                     | Investment   | 415                | 11.4%      |
|                     | Competition policy                                       | 12                 | 0.3%       |
|                     | Dispute/Arbitration                                      | 284                | 7.8%       |
|                     | Economic Integration                                     | Mega FTA/TPP/CPTPP | 152        |
| Rules of Origin     | Origin   | 395                | 10.8%      |
|                     | Rules of Origin  | 96                 | 2.6%       |
|                     | Origin Verification                                      | 39                 | 1.1%       |
|                     | Origin Certification                                     | 34                 | 0.9%       |
|                     | kaesong Industrial Zone/Offshore Processing              | 55                 | 1.5%       |
| Non-tariff Barriers | Non-tariff/Custom Clearance/TBT/SPS                      | 125                | 3.4%       |
| Empirical Analysis  | Empirical Analysis/Effect Analysis/I-O Analysis/CGE      | 582                | 16.0%      |
|                     | Trade network/Value Chain                                | 107                | 2.9%       |
|                     | FTA Negotiation/Dilema                                   | 110                | 3.0%       |
|                     | FTA utilization  | 51                 | 1.4%       |
|                     | Countries  | China              | 437        |
|                     | EU   | 426                | 11.7%      |
|                     | USA  | 355                | 9.7%       |
|                     | Japan  | 74                 | 2.0%       |
|                     | ASEAN/Northeast Asia/Asia                                | 165                | 4.5%       |
|                     | Chile  | 39                 | 1.1%       |
| Industries          | Agricultural Product, Livestock Product & Marine Product | 123                | 3.4%       |
|                     | Automobiles  | 47                 | 1.3%       |
|                     | Manufacture such as Steel/Fabric/Chemical, etc           | 49                 | 1.3%       |
|                     | Service/Digital/IPR/License                              | 464                | 12.7%      |
|                     | Total number of Articles                                 | 3,653              |            |

Source: KCI

였던 시기로서 2006-2010년 동안 약 1,100건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가 거대경제권은 물론 여러나라와 FTA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우선, 이

시기에는 미국, 인도, EU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했던 시기인데 이러한 경향은 FTA 연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과의 FTA 협상이 2006년에 시작되어 2007년 6월에

서명되었고, EU와의 협상이 2007년부터 시작되어 2010년에 서명되었다. 한·인도 FTA는 2009년에 서명되었다. 따라서 이때의 연구는 미국이 전체 연구의 15.7%를 차지하였고, EU가 11.3%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체 연구 중에서 미국을 대상으로한 연구는 이 시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연구의 특징은 FTA 발효 대상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연구 또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 기간 동안 원산지 규정에 대한 연구가 전체 연구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원산지 규정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시기이다. 그리고 여전히 실증분석의 비중이 13.4%로 높았다.

#### 4) 2011-2015년(성숙기)

2011-2015년 동안 FTA 연구는 총 1,371건 이루어져 우리나라 FTA 연구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2년은 325건 연구가 이루어져 단일 연도로서는 최대를 기록하였다. 동 기간 동안에는 베트남, 중국, 중미 5개국과의 FTA가 추진되었고, 중국, 페루, 터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협상이 타결되거나 발효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중국과 FTA를 추진하면서 중국 관련 연구가 전체 연구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거대경제권인 중국과의 FTA 협상은 2010년에 추진되어 2015년 6월에 서명되었고, 동년 12월부터 발효되어 FTA에 대한 관심이 연구실적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FTA에서도 비슷하지만 FTA에 대한 피해 우려와 무역확대에 대한 기대는 중국과의 FTA 추진과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의 경제규모와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글로벌 밸류체인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아세안/아시아/동북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한 시기이다. 반면, 일본에 대한 연구는 전체 연구에서 1.8%를 차지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연구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원산지에 대한 연구는 2006-2010년 9.5%에서 2011-2015년 동안에는 17.9%까지 증가하였다. 한편 이 기간 동안에는 투자에 대한 연구가 13.3%를 차지하여 다른 시기보다 많았던 시기이고, 또 이때부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메가 FTA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 5) 2016-2020년 7월(안정기)

동 기간 동안에는 총 976건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통관, 위생검역, 무역기술장벽 같은 비관세장벽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TPP, CPTPP, RCEP 등 메가 FTA에 대한 연구도 9.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에 대한 연구가 24.3%로서 여러 연구 주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실증분석이 전체의 17.5%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원산지 규정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해 왔고 우리나라 FTA 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국가별 연구에서는 중국, EU, 미국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FTA 연구방법 분석

#### 1) 국내에서의 FTA 연구방법

사회과학에 대한 연구방법에는 크게 질적연구와 양적연구가 있다.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는 모두 과학적 추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질적연구는 자료를 숫자가 아닌 단어 형태로 수집하여 이를 주제와 범주 등으로 나눠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문헌연구나 사례연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양적연구는 대상의 속성에 숫자를 부여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으로서 실험이나 실증분석, 설문조사(survey)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Shim Hye-Young, 2004).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FTA 관련 논문 101건을 대상으로 어떤 연구방법이

**Table 8. Methodology of FTA Research in *Korea Trade Review***

| Division           | Methodology        | Cases | Proportion (%) |
|--------------------|--------------------|-------|----------------|
| Qualitative study  | Literary Study     | 21    | 20.8%          |
|                    | Interview/FGI/AHP  | 0     | 0.0%           |
|                    | Observation        | 0     | 0.0%           |
|                    | Case Study         | 12    | 11.9%          |
| Quantitative study | Empirical Analysis | 64    | 63.4%          |
|                    | Survey             | 4     | 4.0%           |
|                    | Experiment         | 0     | 0.0%           |
| Total              |                    | 101   |                |

Note: 101 Articles in *Korea Trade Review*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면 <Table 8>과 같다. 질적연구에서는 문헌연구가 대부분이고, 양적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FGI나 심층인터뷰 같은 질적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실험이나 관찰방법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우리나라 FTA 연구는 대부분 양적연구로서 실증분석이 63.4%를 차지하고 설문지 등 서베이 연구는 겨우 4.0%를 차지한다.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 FTA 연구방법이 다양하지 못하고 획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CGE분석, 중력모형,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산업연관 분석, 일반균형, 비교우위 등 국가단위, 전체 산업단위 등 FTA의 거시경제 효과를 다루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만큼 FTA 체결에 따른 소비자 후생변화, 개별기업의 선택 등을 주제로 한 미시적 연구는 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 2) 해외에서의 FTA 연구방법

ScienceDirect DB를 이용한 'FTA' 키워드 분석에서 FTA 게재 상위 7개 저널로 한정하면 323건이 검색된다. 그리고 이를 키워드 분석하면 <Table 9>와 같다. TPP, RCEP을 비롯하여 경제통합 연구가 전체의 20.5%(중복)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실증분석이 47.3%(중복)로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실상 해외 저널에 게재되고 있는 FTA 연구의 상당수는

CGE, 중력모형, 비교우위 분석 등 실증분석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증분석에서는 CGE와 중력모형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가 전체 24.3%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해외에서는 원산지규정관련 키워드는 1.5%에 불과한 것도 두드러진 차이이다. 그리고 국가별 연구에는 미국관련 연구가 19.2%로서 높은 편인데, 이는 국내연구가 중국관련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 3) 한미 FTA 연구방법에 대한 논쟁

FTA 연구역사가 길고 FTA 논문 수가 많은 만큼 FTA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한·미 FTA 효과분석에 대한 논쟁이다. 2007년 4월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GDP, 고용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제조업, 농업 등 각 산업에의 영향을 분석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추정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연구방법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한미 FTA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쟁은 FTA에 대한 찬반 논쟁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즉, 시장 개방에 따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중에서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당시 연구자들은 FTA의 긍정적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

**Table 9.** Key Word Analysis of FTA Research in Overseas

| Classification       | Subjects                    | Cases | Proportion (%) |
|----------------------|-----------------------------|-------|----------------|
| Market Access        | Tariffs                     | 33    | 10.2%          |
| Political Economy    | Political Economy           | 10    | 3.1%           |
| Investment           | FDI                         | 40    | 12.4%          |
| Economic Integration | Customs Union               | 16    | 5.0%           |
|                      | Economic Integration        | 17    | 5.3%           |
|                      | Mega/TPP/RCEP               | 33    | 10.2%          |
| Rules of Origin      | Rules of Origin             | 5     | 1.5%           |
| Empirical Analysis   | Model                       | 57    | 17.6%          |
|                      | CGE                         | 51    | 15.8%          |
|                      | Empirical                   | 3     | 0.9%           |
|                      | Gravity                     | 36    | 11.1%          |
|                      | Comparative                 | 6     | 1.9%           |
| Negotiation          | Negotiation/Bargaining/Game | 9     | 2.8%           |
| Country              | China                       | 12    | 3.7%           |
|                      | EU                          | 21    | 6.5%           |
|                      | US                          | 62    | 19.2%          |
|                      | ASEAN/Asia                  | 52    | 16.1%          |
|                      | Total                       | 323   |                |

Notes: 1. Limited to 7 top journals in which FTA is pos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Journal of Asian Economics*, *Economic Modelling*, *The North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Journal of Policy Modeling*, *World Development*, *European Economic Review*.

2. Key Word Analysis of 323 Articles

Source: ScienceDirect

거로 CGE 모형을 통해 추정된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자주 인용하였다. 당시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논문으로는 Cheong Inkyo, 인문사회연구회 10개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물 등이 대표적이었다.

반대로 부정적 효과를 중요시한 반대논리는 주로 FTA 긍정적 효과가 계량분석에서 제시하는 것 만큼 크지 않고, 대신 국민적 공감대 미흡, 경제적 약자의 피해, 사회갈등만 고조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들어 당시 Lee Hae-Young 교수는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제시한 FTA의 경제적 효과는 표준방법론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GDP 증가율을 비롯하여 연구결과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 후 2010년 12월 한미간에 FTA 추가협상이 진행되

어 그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하고 또 데이터도 업데이트하여 2011년 8월에 다시 10개 연구기관들이 참여하여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재분석』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FTA 효과분석도 CGE 분석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으나 그러한 연구방법상의 논쟁이 많지 않았다. 한미 FTA의 경우에는 당시 미국 퍼듀대학에서 만든 통계패키지인 GTAP을 이용하여 CGE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되었으나 자본축적이나 생산성 향상이 제조업은 매년 1.2%p 향상, 서비스업은 매년 1%p씩 향상된다는 다소 낙관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 V. 결론

지난 1999년 칠레와 FTA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FTA 연구는 이미 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내 FTA 연구는 주로 거대 경제권과의 FTA 협상과 병행하여 발전하여 왔는데, 한미 FTA 논쟁이 심했던 2008년에 급속하게 증가되어 한중 FTA가 시작된 2012년에 절정에 이른 후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차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 학술지에 게재된 FTA 논문만 해도 3,000여개가 넘는다.

발표된 연구 건수가 많은 만큼 좋은 연구자도 많았다. 연구자중에서는 매년 수 건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도 있고, 수 십건씩 인용되는 높은 피인용지수와 훌륭한 성구성과를 인정받아 높은 H-지수를 가진 연구자도 여러 명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FTA 연구는 해외 연구자와의 연구네트워크가 미흡하고 다른 학문과의 융합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 FTA 연구는 단독연구가 65.4%, 2인이하 공동연구가 91.1%로 연구네트워크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는 향후 연구자들의 과제이다.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연구는 Ko Jong-Hwan의 연구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Ko Jong-Hwan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해외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산물 분야는 물론이고, EU, 중동지역, 아태지역, 그리고 GCC, RCEP 같은 다자간 지역무역체제까지 연구영역을 확대하고 있었다. 물론 이번 연구는 KCI에 등재된 국문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SSCI 등 해외저널에 등재된 국내 연구자의 FTA 연구 네트워크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만약 해외저널에 등재된 국내연구자의 네트워크를 조사하면 국내연구자들의 네트워크가 이번 연구결과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후 연구로 남겨둔다.

국내 FTA 연구는 연구주제가 다양하지 못하고 다소 획일적인 측면이 있다. 전체 연구중에서 원산지 관련 연구가 24.3%를 차지하고, 중국관련 연구가 15.3%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되어 있다. 개인별 피인용 횟수가 많은 논문도 원

산지 규정과 FTA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반면, 국제경제학 분야의 대표적인 필드 저널인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를 살펴보면 해외에서도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다룬 논문이 인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관세철폐, 경제지리, FTA의 정치경제학 등 연구 주제가 국내보다 훨씬 다양하고 학술적이다. 해외에서의 FTA 원산지 규정 연구는 1.5%에 불과하다. 국내 FTA 연구는 FTA의 필요성에 대한 본원적 고민보다는 FTA 체결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활용연구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다. 향후 국내 FTA 연구는 연구주제를 다양화하면서 학술적 측면과 실용성 측면간의 균형이 필요해 보인다.

연구방법에서는 국내외 모두 실증분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실증분석은 18.3%, 해외에서의 실증분석은 47.3%로 매우 높다. 국내에서는 CGE와 산업연관 분석이 많았고, 해외에서는 CGE, 중력모형, 비교우위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국내 FTA 연구에서 FGI(표적집단면접)/AHP(분석적계층화연구)나 심층인터뷰, 사례분석 같은 질적연구는 매우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대상의 국가 편중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지난 2016-2020년 동안 국내 FTA 연구의 국가별 대상을 살펴보면 중국 15.3%, EU 10.0%, 미국 6.3%이다. 해외에서의 중국연구는 3.7%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 규모와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글로벌벨류체인 등의 영향으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사실이지만 연구자들의 연구영역은 실무나 현장보다 선제적으로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 동남아는 물론이고 유럽, 중동까지 연구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이밖에도, 국내 실증분석은 지나치게 국가단위, 전체 산업단위 등 거시경제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비자 후생, 개별기업의 선택 등을 주제로 한 미시연구도 필요하다. 향후 FTA 연구는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연구주제와 연구영역을 확대하고 질적연구를 확대하여 미시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References

- Anderson J. E. and Y. V. Yotov (2016), “Terms of Trade and Global Efficiency Effects of Free Trade Agreements, 1990-2002”,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9, 279-298.
- Bae, Ho-Soon (2004), “Meta Analysis”, *Educational Evaluation Thesaurus*, Korean Society for Education Evaluation, 200-249.
- Baier S. L. and J. H. Bergstrand (2007), “Do Free Trade Agreements Actually Increase Members'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1(1), 72-95.
- Baldwin R. and D. Jaimovich (2012), “Are Free Trade Agreements contagiou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88(1), 1-16
- Bond E. W., R. G. Riezman and C. Syropoulos (2004), “A Strategic and Welfare Theoretic Analysis of Free Trade Area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64(1), 1-27.
- Cheong, In-kyo (1999), “The Impact of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on Trade Deflection in the Regional Trading Bloc”, *East Asian Economic Review*, 3(2), KIEP, 115-131.
- Cheong, In-kyo (2006), Evaluation of the Chile-Korea FTA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FTA Policy, *East Asian Economic Review*, 8(1), KIEP, 169-195.
- Cheong, In-kyo (2006), “Estimating Economic Impacts of a China-Korea FTA”, *Kukje Kyungje Yongu*, 12(1), 111-138.
- Cheong, In-kyo (2009), “Survey on the FTA Utilization and Policies for Enhancing Korean Companies' Utilization Ratio”,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13(3), 367-390.
- Han, Sang-Hun and Tae-Hwan Kim (2018), “Meta-Analysis of the Field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and Systems”,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20(2), 61-78.
- Kim, Chang-Bong and Kyong-chol Yo (2017),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Trade on Korea-India FTA Using Meta Analysis”, *Korea Logistics Review*, 27(4), 55-63.
- Kim, Chang-Tae (1998) “Rules of Origin for the Free Trade Agreement of the Free Trade Agreement (NAFTA) in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Regional Policy Review*, 10(1), Chungbuk Research Institute.
- Kim, Moon-Hee (2017), “The Meta-Analysis of Correspondence to Management Areas in the Era of FTAs: Focused on Research Papers from 2000 to 2016”,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24(1), 117-132.
- Kim, Young-Min and Eui Hong(2015),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Korea International Commerce Review”, *Korea International Commercial Review*, 30(4), 3-23.
-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y Policy *et al.*, (2007),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US FTA*, KIEP.
-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y Policy *et al.*, (2011), *Re-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US FTA*, KIEP.
- Lee, Ho-hyung (2017), “Meta Analysis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19(2), 259-273.
- Lee, Ho-hyung (2018), “Meta Analysis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on E-Trade Area”,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20(2), 3-21.
- Lee, Young-Soo and Soon-Koog Kwon (2011), “The Case Study and Its Implication on the Breach of Rules of Origin in FTAs”,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49, 493-518.

- Oh, K. Y. and T. Kim (2012), “Measuring the Welfare Eff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hanges on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the Case of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sia-Pacific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19(3), 278-291.
- Shim Hye-Young (2004),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as a Research Method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Examination Study*, 31(3), 457-460.
- Shin, Tae-Beom and Sang-Hee Kweon (2013), “A Meta Analysis for Online Journalism Researches: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 of Analysis Object, Theme, Theory and Methodology”, *Communication Theories*, 9(2), 200-249.
- Sohn, Chan-Hyun and Hyo-Sung Yim (2000), “Free Trade Agreements (FTAs) and the Income Convergence of Member Countries: Lessons from the EU, AFTA and ANZCER”, *East Asian Economic Review*, 4(1), 3-29.
- Sohn, Sung-Pyo (2020), “A Research Progress and Meta Analysis of International Trade Area on the Customs Study”,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21(1), 3-17.
- Yeo, Taek-Dong (2014), “Meta Analysis of Articles on International Trade Theory”, Korea Trade Research Association Inc.35-79.